

## 구별된 레위인의 사명

민수기 1:47~54

### 【인도자를 위한 예화】

휴대용 기기가 없었던 시절, 누군가와 약속 장소에서 원활히 만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눈에 띄는 구조물, 내가 입고 있는 옷차림과 색깔 등을 미리 고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를 역이용해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 엉뚱한 장소와 정보들을 제공해 나온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남는 일입니다. 그러나 추억으로 남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결코 허무하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누구보다 신실하십니다. 오히려 약속 장소에 나가야 하는 우리가 엉뚱한 곳을 찾아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정해진 약속 장소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 주신 장소에 온전히 도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후 약 14개월간 시내산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1:1).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행진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징병을 위한 인구조사가 시작되며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이 계수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창 22:17)임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게 해 줍니다. 각 지파의 계수는 천 단위, 백 단위에 그치지 않고 일 단위까지 기록되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 신빙성과 정확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하고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요 또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본문은 출애굽 이후 첫 인구조사(창 46장)와 애굽으로 이주한 초기 이주자들의 명단(출 1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의 전환점에 있음을 알게 하는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번성한 이스라엘은 현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인구조사를 통해 민족의 조직, 질서, 자원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무엇을 관리하게 하셨나요? 그곳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50~51절)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셨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성막 가까이 오게 되면 죽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막을 돌보며 장막의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역할을 일임받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거나 진을 칠 때 장막을 걷거나 세우고,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성막에서 봉사하고 장막 사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50~51절).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에 완충 역할을 하며, 백성의 목숨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무를 갖습니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51절)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역할을 맡기신 레위인이 아니면 성막과 관련된 일에는 누구라도 이방인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하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53절).

## 적용과 나눔 I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태도로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분을 맡습니다. 두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가 바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함은 물론 공동체의 상태를 잘 살필 줄 아는 영적 분별력과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관찰과 묵상 II

###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진을 쳤나요?(52~53절)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진영과 군기 곁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진영과 군기 곁에 진을 친 이유는 만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사방에 진을 쳤는데, 이는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막에 대한 지침은 출애굽기 25~30장에 걸쳐 나오지만, 성막 건설은 출애굽기 35~40장에 보다 자세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출 32장)이 존재합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과의 계약 파기와 맹렬한 진노가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 중단됩니다(출 32:11~14). 이후 하나님과의 계약이 갱신되고 공동체 가운데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는 여전히 죄 많은 백성임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게 해 주는 유형의 상징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함과 동시에 레위 지파를 방패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I

**가정, 학교, 일터 등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의 성막’은 성막의 다른 용어로, 회막과 함께 성소를 가리킵니다. 먼저 ‘회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셔서 만남이 성사되고 회합을 이루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를 위한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중’으로 지칭합니다(53절).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54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